

### <지난주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적입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과거나 현재가 구분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구원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복음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따라간 전도자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따라갔고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동일한 복음을 가진 이들의 결말은 순교의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제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무슨 정리요? 복음에 대한 정리. 아 이제 내 마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구나, 이게 정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적인 것, 미디어, 소문, 다른 사람의 말로부터 나를 지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라서 엄청나게 많은 말이나 소문이 들립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죽 한 그릇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었습니다. 팔죽 한 그릇 때문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민족에 영원토록 흐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까짓거 팔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준다고 해서 바뀌냐? 그거 준다고 동생이 형 되고 형이 동생 되냐? 그렇게 에서가 가법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팔죽 한 그릇으로 모든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흐름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더 멋있고 남자다웠지만 영적 사실에서는 야곱보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흐름의 계보, 언약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팔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영은 그리스도인데 육신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주로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영원토록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의 참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어떤 새 언약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새 언약입니다. 방주의 새 언약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의 새 언약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새 언약입니다. 그 주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니이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해방의 중보자입니다. 마귀 자녀로 살아야 할 인간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사탄을 멸하신 중보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중보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고, 그리스도는 중보자고,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입니다. 요1:1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3:15 여자의 후손, 요14:6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 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 <본론>

#### 1. 형제 사랑을 계속할 것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13:1-2)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고 중보자고 예수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은 아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쓸 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부지중에 손님을 맞이했고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대접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출산할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시고 씨의 비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지중에 대접했더니 언약의 흐름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이 대접을 통해 아브라함의 끊겼던 언약의 흐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대접한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자를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13:3)

이때 당시 예수 믿는다고 갇힌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갇힌 자 뿐만 아니라 학대받는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학대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고 복음 때문에 사는 자, 정말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너만 잘먹고 잘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신경을 끄지 말고 잘 챙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13:4)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혼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일처를 원하시지, 일부다처, 일처다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13:5)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은 관리하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오늘 꼭 붙잡으세요. 그런데 때로는 떠난 거 같지요? 때로는 버린 거 같아요. 그게 바로 속는 거죠.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13:6)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협박, 고난, 환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이 맞다면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히13:7)

말씀을 전했던 선배 전도자들, 말씀 전하다가 죽은 자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결론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붙잡고 살다가 순교했는지,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받을만한 사역자, 렘넌트가 일어나야 합니다.

#### 2.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성삼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써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써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히13:9)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에 관심갖고 끌리지 말고 속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영원히 동일한 복음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여정을 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복음으로 결론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영지주의나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인생이 깨끗해지거나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 욕망, 욕구에 대한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먹고 잘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이 잘먹고 잘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히13:10)

우리에게는 무슨 제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시온산의 제단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13:11-12)

우리가 붙잡은 이 영원한 복음은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이 드렸던 피의 제사가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제단의 비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13:13)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히13:14)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이 도성은 지난주 말씀에 어떤 도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영원히 있는 영적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도성이 짐승의 피의 제단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으로 가야만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13:15)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항상 예수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수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는 찬송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13:16)

예수의 피의 비밀을 아는 형제를 사랑하여 나누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 3.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13:17)

이게 사역자의 중심입니다. 사역자들은 양을 다스리는 목자처럼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근심이 되고 목회자가 근심이 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사역자를 잘 돌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기쁘고 행복해야 하고, 중직자와 성도들은 이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히13:18-19)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면서 더 깊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마무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히13:20)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 두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히13:21)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긴 이정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무리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히13:22-23)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형제 디모데에 관해 말하며 그가 감옥에서 놓였으니 그가 속히 오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히13:24-25)

히브리서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내가 가야 할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은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중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른 교훈을 듣지 말고 다른 교훈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 증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하고 문안하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용납하고 문안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문안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